

레슬리 앨런(Leslie Allen) 박사, 애도, 세션 2, 소개, 2부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세션 2, 애도 소개, 2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디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애가의 장소를 고대세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세속적인 장례 애도의 전통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애가서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문화의 또 다른 측면과 위기와 관련된 전통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장례 애도 외에도 기도 전통이 있었고 애가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회중이 슬픔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속적인 애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애가 전체에는 기도하라는 부르심이 나오는데, 매우 자주 그것은 도시의 의인화인 시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실제로 회중이 따라야 할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하는 일을 회중도 결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을 보기 위해 애가를 살펴보면, 1장 9절 끝에서, 11절 끝에서 시온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20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하는데, 그것은 모두 불만입니다.

불만을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기도로 표현해야 할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때에 기도의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과 19절에서 나리타는 시온에게 기도를 권면합니다. 시온아, 기도해야 한다. 암시적으로 이는 듣고 있는 회중에게 슬픔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2시 20분부터 22절까지는 또 한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분명한 기도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맙소사, 뭔가 조치를 취해보세요. 우리를 도와 줘. 우리는 적들의 손에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장의 시작과 끝에서 두 가지 종류의 간증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도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죄책에 관한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바탕에는 바로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의 마지막 부분인 52절부터 66절까지는 불평의 기도, 불평의 간증입니다. 3장에서는 시온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회중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3장에 이르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머물면서 3장, 40장, 41장에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죄책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 42~47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 샘플이 있습니다. 회중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종류.

그리고 그것 역시 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5장에서 우리는 이 장의 대부분이 기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중이 차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세 장에 나온 다양한 기도 요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5장의 많은 의미는 애가가 수행하고 있는 기도의 사명이 5장에서 마침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속적인 애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5장에 나옵니다. 회중은 5장 중간 부분 전체, 2절부터 18절까지 장례 애도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실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가서에 나오는 사명입니다. 회중은 슬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한탄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 이르면 두 가지 사명이 성취됩니다. 슬픔과 기도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 위기의 시기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가서가 어떻게 그 전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통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중 전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애도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의 형태로 영적인 애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에도 일종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는 고통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블루스를 부르는 블루스 노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입니다.

문제는 온갖 종류로, 말로 표현됩니다. 신에 대한 언급도 없고, 종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블루스는 구약성서와 고대 셈족 세계의 세속적 애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흑인 영성이라고 부르던 영성입니다. 뼈들이요, 뼈들이요, 마른 뼈들이요.

그리고 이것들은 종교적이며 본질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를 활용하세요. 노예 제도와 흑인의 문제에 관한 노래.

이것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가들의 일종의 기도문과 종교적인 텍스트로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이중 자원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가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전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서 실제로 많은 시편이 애통의 기도임을 발견합니다.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50편 중 65편이 애가이며 그 중 거의 절반이 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인용할 때 애도 시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전례나 개인적인 용도보다 시편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애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 25%는 적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도 중 상당수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75%는 개인의 기도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겪는 질병이나 사회적 소외의 위기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애도와 개인의 애도의 차이를 항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우리, 그리고 우리 를 말하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은 나와 나와 나의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관한 시편 102편 3절부터 11절은 질병에 매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매우 자주 그것은 개인적인 적들의 문제이며, 꽤 많은 시편이 바로 그러한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 기도에서 발견하는 전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탄식을 읽을 때 중요할 것입니다.

시편 애가를 작곡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42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기도에 반영된 일종의 패턴, 즉 개인의 기도 애도에 대한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절과 2절의 첫 번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그 앞에 나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나는 그 앞에 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는 두 번째 사람의 주소로 이동하게 된다.

내 영혼이 약할 때, 당신은 내 길을 아십니다. 따라서 초기 요청 이후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위기는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 야? 그리고 당신은 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에는 위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손을 보고 보아라. 나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요청에 위기가 설명되었습니다. 믿음이 확증됩니다.

이러한 탄식 기도에는 항상 믿음의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a에서 내 영혼이 약해질 때, 당신은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이 잘못될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 자의 땅에서 나의 몫이시라

다시 한 번,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다음 청원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6절과 7절에는 기도문이 거의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십시오. 나는 심히 비천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어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청원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7절 끝에서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의인들이 모여들어 나를 축하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설득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촉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했습니까? 글썄요, 인간계에서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변에 있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구약의 맥락에서 더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성전 선지자나 제사장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렇다고 위기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기도한 사람은 돌아가고, 성전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서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반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55~57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당신은 내 간청을 들었습니다.

도와 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불렀을 때 당신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주어진 응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라지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좋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실 것이었습니다. 시편에도 이와 동일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주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곳은 있어요. 예를 들어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곡의 기도가 있고 5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궁핍한 자가 탄식하므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곳에 두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6장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는 매우 슬프게도 이런 애통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절, 8~10절에서는 오히려 곡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내 원수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겁에 질릴 것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순식간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 즉 성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한 응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리고 적들과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단지 흥미로운 시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의 표현으로 성전 지팡이와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가서에서 기도 전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가의 시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특히 시편 142편을 살펴보았고, 성전 역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문자적인 응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애가에 중요한 시편의 몇 가지 구체적인 애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은 회개의 시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지만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고, 시편 106편에는 공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과 사회적 관계가 깨졌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시편이 있고, 몇 편의 참회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애도가 붙잡고 붙잡고 붙잡는 전통이며, 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회하는 애가의 시편과 다른 애가의 시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구원을 가져오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회 시편에서는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하는 삶의 패턴에 다가가 회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에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 필요 사항은 애가의 기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인 탄식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읽지 않으며 어쩌면 오히려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기도 전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우 존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본다. 그러나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 시편에 나오는 도전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3분의 1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표현에 있어서 더욱 극단적인 탄식의 기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의 기도이자 개인적인 애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왜? 왜? 또 다른 하나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예를 들어, 우리는 시편 74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를 발견합니다.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목장의 양들을 향하여 분노의 연기를 피우시나이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왜 손을 잡지 않습니까? 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나요?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시편 74편 10절, 하나님이여 원수가 언제까지 비웃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는 원수입니까? 그리고 이런 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편을 도전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도전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 끝에서 기도가 바로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8-0. 그리고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노하시리이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 담을 헐고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 열매를 따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순진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혹감과 항의의 외침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예가 있습니다. 나는 독감에 걸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침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장병으로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 누나 중 한 명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니가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의사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콧 담히고 여동생이 나갔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베개를 치며 '하나님, 왜 그녀를 죽게 놔두셨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도전의 기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독교 신앙이 그 당혹스러운 항의에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은 본능적이었습니다.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것은 매우 많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임에 틀림없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리고 항의의 표시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는데, 이는 지금 당장만 언급하고 나중에 3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시편에는 지혜를 가르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예는 시편 34편인데,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설교이지만 지혜서, 잠언, 욥기,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실행하여 그것을 설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중반부에서는 시편에 나오는 지혜 교육 전통을 따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3장의 놀라운 구절들은 그 전통의 일부입니다.

비슷한 전통입니다. 지혜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이 설교 전통은 이미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서를 읽을 때 아마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은 표면 아래에 아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로 애가를 읽게 되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원본의 완전한 힘을 전달할 수 없고 어떤 특정한 면에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traduttore, traditore 가 있습니다. 번역가는 배신자입니다. 이는 번역가가 원본의 힘을 완전히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대부분의 시가 두음체 형태로 표현 된다는 것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1장, 2장, 4장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수를 반영하고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가 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22개의 절이 있습니다. 연속된 알파벳 문자.

그리고 삼합체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 즉 문학적 전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양 문학에는 예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예는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A,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니요. 두 번째 줄 B, 너무 아름다워요. C, 당신은 매력이 넘치는 귀염둥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첫 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당신 정말 사랑스럽네요. 나는 그것을 있어.

아, 당신 정말 사랑스럽네요. B, 너 정말 아름다워. C, 당신은 매력이 넘치는 귀염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1947년 페리 코모(Perry Como)에 의해 대중화되었으므로
기성세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에 사용되는 아크로스틱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사랑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총체성, 즉 아크로스틱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도 종교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31장의 마지막 부분인 10절부터 31절은 좋은 주부, 좋은 아내에
관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22줄의 알파벳으로 그녀가
얼마나 멋진지 말해줍니다.

그녀는 완전한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크로스틱입니다. 그리고 각 줄의 시작 부분에 있는 알파벳
문자를 모두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은 전적으로 찬양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예입니다. 이제 애가 1장부터 4장은
이 전통을 선택하여 위기와 슬픔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전체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슬픔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4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3장에서는 슬픔을 넘어갑니다.

슬픔을 넘어 더 행복한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총체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총체성입니다. 그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1, 2, 4장은 끝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위기의 해결 너머에 있는
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합창체 형식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22행, 22행으로 되어 있어 합창 전통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반 영어 버전이 이 두음체 형태를 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948년에 만들어진 로널드 녹스(Ronald Knox)의 로마 가톨릭 번역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성서의 번역본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애가를 영어 어크로스틱 형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녀가 혼자 산다.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반드시 울어야 합니다. 3절은 고통이 잔혹하다고 시작됩니다.

4절, 시온의 거리를 황폐하게 하라. 음,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자들에게 아크로스틱 형태를 드러내지만 그것은 인위적이 됩니다. 그리고 Knox는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감정을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목회 활동을 위한 다섯 가지 매끄러운 돌』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가를 포함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하여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다섯 권의 두루마리 모음집을 살펴봅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아크로스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크로스틱은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구조라고 말한다. 애도는 오히려 아크로스틱 형식을 존중하고 반복한다.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크로스틱 패턴이 주의 집중 자세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항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한, 아크로스틱은 고통의 각 세부사항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기초를 검토하면서 슬픔을 조직한다고 말합니다.

통증은 분류되고, 정의되고, 객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애가의 저자는 이 합체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아크로스틱 형태의 강렬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도에서 어떤 경우에 알아볼 수 있는 슬픔의 심리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요소가 전면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은 마비된 충격으로 시작됩니다. 뉴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앤티크 로드쇼를 시청할 때 누군가 더러운 작은 화분을 가져오면 전문가는 '아, 이게 경매에 12,000달러에 팔릴 거야'라고 말합니다. 반응은 무엇입니까? 안 돼요! 농담이군요!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몹시 나쁜 소식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애가의 저자는 유다 백성들이 남겨둔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87의 이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여러 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주위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애가의 저자는 그것을 조금씩, 단계별로 헤쳐나가는 놀라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마비된 충격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글썄요,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일부는 그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말하고, 손실의 범위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도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앉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폭발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이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온이 탐닉하는 그 한탄의 기도. 아, 이건 너무하다.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공평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인 echah 는 감정적 폭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감탄사로는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손실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에 몰입하고 깊이 생각하고 표현해야 하며, 잃어버린 것을 표현하고 고통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도가 끝까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한 Ruth Feldman이라는 시인의 멋진 작은 시가 있습니다. 상실의 물이 차올 때, 나는 말씀의 방주를 짓고, 모든 말의 두 부분을 취하여 홍수를 탭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상실의 물이 차올 때, 나는 말씀의 방주를 짓고, 모든 말의 두 부분을 취하여 홍수를 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표현하는 표현, 이야기를 전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난 일을 평가하고, 가능하다면 일어난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도에 매우 유효합니다. 의미를 찾고 싶어하며, 꾸며낸 의미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평가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낡은 기대, 낡은 가정,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믿음에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효한 새로운 기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도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작별 인사를 하며 그 손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야 할 게 있는데... 와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종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폐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글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별의 관점에서 말하는 종결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안의 편안한 어딘가에 그 관계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마음에 집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은 사람을 잊지 않고 그 관계를 우리 안의 편안한 어딘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통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픔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전기와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슬픔에 관한 CS Lewis의 위대한 책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 Joy를 암으로 잃은 것에 대해 여전히 매우 슬퍼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극복할 수 없는 전환점에 대한 메모로 끝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아직 그의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새벽이 오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처럼 지평선에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을 정의하는 방법은 고통이 여전히 심하지만 더 긍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느껴지지만,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5장에서 우리가 도달한 요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애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인 고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도가 뭔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전환점입니다.

슬픔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만, 1장, 2장, 4장에서는 마음 속 속보로 과거만을 바라보는 대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격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단계가 애도에만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용납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 애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4장과 12절의 한 부분에서 표현됩니다. 대적이나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주민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고통받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땅의 왕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가의 저자가 다루어야 했던 유대인들이 암묵적으로 느꼈던 그 마비된 충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슬픔의 자서전에서 읽은 마비된 충격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잃은 엄마, 유산된 아기, 첫 아기.

그녀는 내가 여자의 빈 구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음덩어리처럼 얼어붙었다.

그 아기를 잃은 것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 마비된 충격이 있습니다.

얼음덩어리처럼 얼어붙었다. 지난번에 저는 2001년 뉴욕 건물의 붕괴와 파괴에 대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이에 대해 글을 쓴 한 사람은 실제로 슬픔 상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관한 책을 썼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비된 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을 오른쪽으로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창백하고 좀비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무역 센터 건물 중 하나가 까맣게 그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지저분한 국경 서점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포스터는 검게 변한 창문을 통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백하고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애가가 열리면서, 창백하고 좀비처럼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눈을 집중할 수 없는 회중에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경험입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장 전반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구절들을 철저히하고 주의깊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렇게 할수록 다음에 그들에 관해 내가 말해야 할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세션 2, 애도 소개, 2부입니다.